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국인 지출 줄이지 않은 이유들
- Bloomberg: 미 중산층, 연준의 인플레이 싸움에 힘들어

[미국 금융]

- WSJ: 높은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사상 높은 금리 끝낼 수도

[에너지]

- Bloomberg: 세계은행, “원유 공급 약간 차질 빚어도 1백불 인상 가능성”
- Bloomberg: 풍력 산업 휘청거리며 투자자들 손실 커져

[물류]

- NYT: 친환경 선박, 기후변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

- WSJ: 바이든,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 행정명령 서명

[글로벌 경제]

- Bloomberg: 호주 총재, 무역관계 회복 위해 중국 방문
- Bloomberg: 강달러 현상, 아시아의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 일으킨다
- Bloomberg: 이스라엘 경제가 11% 위축되다... 하마스와의 분쟁 영향 때문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미국인들, 적게 근무하고 더 많은 임금 받는 셈이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Americans Can't Stop Spending. Five Reasons Why

미국인 지출 줄이지 않은 이유들

- 요지: 고용 안정, 높은 저축률, 미래에 대한 회의론 등이 지갑을 계속 열게 하고 있다.
- 우선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대해 정당한 자심감이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최근에는 30년 고정 모기지율이 8%에 가깝지만 낮은 모기지 금리로 고정되었던 미국인들은 여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저축할 수 있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사용하고 싶은 심리도 있다는 것이다. 팬데믹 때 주변에 사망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좀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수입을 즐길 수 있는 시각을 보내자는 입장도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Bloomberg: Middle-Class Americans Are Rattled by Fed's Fight Against Inflation**미 중산층, 연준의 인플레이션 싸움에 힘들어**

- 요지: 중산층의 57%가 대출 비용으로 힘들어 하고 1년전 보다 더 많은 중산층이 경제로 스트레스 받는다.
- 경제 성장과 탄력적인 일자리 시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중산층들이 1년 전보다 경제 상황에 대해 더 우려한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의뢰한 Harris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한마디로 빠른 금리 인상 조치로 고금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중산층의 57%는 높은 대출 비용이 그들 가계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44%가 경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1년전의 40%, 올해 3월이 39%보다 늘어난 수치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Higher Bond Yields Could End the Fed's Historic Rate Rises****높은 국채 수익률이 연준의 사상 높은 금리 끝낼 수도**

- 요지: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수익률의 기간 프리미엄이 연준의 2, 3차례 금리 인상 효과와 동일하다고 말한다.
- 도이치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금리 상승 때문에 내년 경제 활동이 0.6% 포인트 감소할 정도로 금리 여건이 긴축되었다면서, 이는 각각 0.25% 포인트씩 약 세차례의 금리 인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 최근 기간 프리미엄 상승은 9월 회의에서 예상했던 연준 관리들이 최종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대체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인 제네바 소재 리서치사인 Underlying Inflation의 Tilda Horvath는 보고 있다.
- 이와 비슷하게 연준의 컴퓨터 모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기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연준이 향후 2년동안에 금리를 9월에 예상했었던 것 보다 약 0.5% 포인트 더 인하해야 할수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 Could Jump Above \$100 on Small Disruption, World Bank 세계은행, “원유 공급 약간 차질 빚어도 오일 1백불 오를 수 있다”

- 세계은행은 중동 갈등이 가속화되어 원유 공급망에 조금만 차질을 빚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하루에 50만배럴~2백만 배럴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원유는 배럴당 93불~102불 사이가 될수 있다는 것.
- 더우기 분쟁의 폭이 넓어질 경우 하루 3백만 배럴~500백만 배럴이 중단되면 가격인 1백21불까지 올라가 상황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 1973년 중동전쟁과 같은 큰 사태로 발전될 경우 6백만~8백만 배럴이 중단되어 배럴당 1백57불까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s Wind Industry Struggles, Investors Brace for Orsted Losses**풍력 산업 휘청거리며 투자자들 손실 커져**

- 풍력 해상 관련 기업체들이 수익성에서 손해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글로벌 해상 풍력 1위 개발업체인 Orsted a/s가 올 여름 미국 포트폴리오에 큰 손상을 입히고 올해 46%의 주가 하락을 입힌 상황에서 이번주 수요일 실적을 발표한다. 이 회사의 어려움을 다른 풍력 개발 회사들이 모습을 대변한다고도 볼수 있다.
- 독일정부도 지멘스 에너지 AG를 지원하기 위해 애를 있고 노르웨이 에너지 대기업인Equinor ASA도 최근 3억달러의 손상을 입었다.

Bloomberg 기사

[물류]

NYT: Shipping Contributes Heavily to Climate Change. Are Green Ships the Solution?**친환경 선박, 기후변화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최근 친환경 에너지 메탄올과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해 운행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 The Laura Maersk는 선박 업계가 기후변화에 대응 노력을 하고 있다는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
- 선박을 통한 운송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거의 3%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일부 선박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선박을 천연 가스를 이용해 운행하는 등 글로벌 환경 규제의 준수에 노력 중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들과 몇몇 선박 경영진은 이런 변화에 비판적이다.
- 기존의 연료에서 메탄올로 전환하는 것은 새로운 배를 건조해야 하고, 오래된 선박을 다른 엔진과 연료 저장 체계로 개조해야 한다. 또한 세계 곳곳의 항구 또한 친환경 선박이 정박할 때 필요한 시설들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 운송 업계 전부가 친환경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세계는 충분한 양의 친환경 메탄올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
- 친환경 자원으로 메탄올을 만드는 OCI Global의 최고 경영자인 Ahmed El-Hoshy 는 오늘날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생산하는 친환경 메탄올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솔직히 말하자면, 기업들이 친환경 메탄올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아직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이런 준비를 위해, 친환경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관련 기술들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들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3배에서 5배 비싼 친환경 연료에 대해 장기간 계약을 맺을 의향의 구매자가 필요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NYT 기사

[인공지능]

Bloomberg: Biden Signs Sweeping Executive Order Regul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든,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 행정명령 서명

- 바이든 대통령이 미 행정부가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새로운 규정은 주로 AI에 대한 안보와 사생활 보안 기준에 관한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은 앞으로 새로운 규정에 각자의 AI 모델이 검증받도록 해야 하며, 결과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규정은 현재 출시된 AI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건강과 안전을 비롯한, 잠재적인 국가 및 경제적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이번 계획에는 흔히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AI 생성 콘텐츠를 위한 워터마킹 기준(디지털 데이터에 저작권 정보와 같은 비밀 정보를 삽입하여 관리하는 기술)을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 블룸버그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AI를 위해 2023년에 16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는 미군이 지출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을 공개함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WSJ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and Australia Are Repairing Frayed Trade Ties
호주 총재, 무역관계 회복 위해 중국 방문

- 호주의 총재인 Anthony Albanese가 이번 주 토요일 중국을 방문한다. 이는 2016년 이래로 처음이다.
- 오늘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호주 총재의 방문은 중국이 호주에 대한 압박 외교를 포기했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양 국가의 관계는 호주가 중국에 인권 문제와 코로나19 발생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악화됐다.
-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압박이 한계성 가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rong Dollar Keeps Rate Hikes on Table for Asian Central Banks**강달러 현상, 아시아의 중앙은행들 금리 인상 일으킨다**

-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6개월가량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보인다. 강달러 현상과 높은 유가가 주원인이다.
- DBS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Radhika Rao는 강달러와 높은 물가 상승의 이중고가 아시아 은행들의 긴축정책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이고도 상당한 크기의 물가 상승이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재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현재까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평균적으로 선진국과 대비해 훨씬 낮은 금리 인상을 보여왔다.
- HBS 홀딩스의 아시아 수석 경제학자인 Frederic Neumann은 미국과 아시아 국가의 금리 차이는 강달러로 인한 경제 역풍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요소가 환율 차이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금리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이나 다른 시장 요인으로 인해 금리 차이가 더 심해진다면, 한국이나 인도 같은 아시아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정책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Israel's Economy Set to Shrink 11% as Hamas War Escalates: JP Morgan
이스라엘 경제가 11% 위축되다... 하마스와의 분쟁 영향 때문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JP Morgan Chase & Co 기업 관계자는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연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경제가 11% 위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금까지 월가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은행의 전망치가 가장 비관적이며, 투자자들은 이미 상당한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텔아비브의 주요 주가지수는 10월 7일 이후 현지 통화 기준으로 11% 하락했으며, 셰켈화는 2012년 이후 가장 약세로 떨어졌다.
- 그러나, JP Morgan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GDP가 올해 2.5% , 내년엔 2% 각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10월과 12월 사이 11%의 경제 위축 추정치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조정 성장치이다.
- 이스라엘의 중앙은행은 10월 23일 기준 기준금리를 4.75%로 유지했다. 분쟁 중에도 통화정책을 완화하지 않는 것은 1984년 이래로 약세였던 셰켈화를 지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Workers Are Doing Less Work for the Same Pay 미국인들, 적게 근무하고 더 많은 임금 받는 셈이다

- 미국인들이 점차 일하는 것애 비교해 더 많은 보수를 얻고 있다.
- 가족 휴가, 병가 그리고 방학 등 유급 휴가의 증가는 급여가 지급되는 근로 시간과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의 차이를 넓히고 있다.
- 고용주들은 경쟁적인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를 보유하고 채용하기 위해 유급 혜택을 늘려왔고, 이런 혜택을 근로자들이 활용하면서 지금의 현상이 증가한 것이다.
- 미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봄부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한 비율은 80%로 10년 전 67%보다 증가했다. 유급휴가는 74%에서 77%로 확대되었다. 유급 가족 휴가는 12%에서 27%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전문가 전망 비웃듯 소비 멈추지 않는 미국인들...이유는?

WSJ, 일자리 낙관·많은 저축·소비관 변화 등 5가지 소개

저축액 감소와 장기 금리 상승 등 경기 위축 신호도

미국인들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콘서트장이나 영화관에 데려가고 값비싼 여행을 주저 없이 예약하고 있다. 또 자동차를 사거나 주거비용과 외식비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전망을 했으나 이런 강한 지출로 인해 곤욕을 치러야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은 이런 소비 추세를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다섯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